IT

반도체, 상승 여력에 초점

더 많은 리포트 보기

KB증권

반도체 / 전기전자 Analyst 김동원
02-6114-2913 jeff.kim@kbfg.com
반도체 소재 / 부품 Analyst 유우형
02-6114-2940 Woohyung.yoo@kbfg.com

2024년 4월 22일

Positive 유지

엔비디아 주가 10% 급락, 시가총액 2조 달러

미 현지시각 4월 19일 엔비디아 (Nvidia: NVDA) 주가는 10% 급락한 762 달러를 기록,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내며 시가총액 (1.905조 달러) 2조 달러를 하회해 시가총액 3위는 근소한 차이로 알파벳 (Alphabet: GOOG, 시가총액 1.925조 달러)이 차지했다.

엔비디아 주가 급락 배경: SMCI, TSMC, ASML 실적 우려

엔비디아 주가 급락 배경은 중동 지정학적 우려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상태에서 SMCI, TSMC, ASML 등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우려가 매도세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특히 ① 과거 7개 분기 동안 예비 실적발표를 통해 매출과 이익 전망치를 상향해 온 SMCI (슈퍼마이크로: 4/19, 주가 -23%)가 이번 1분기 실적에는 예비 실적발표를 생략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② TSMC는 AI용 선단공정 수요는 양호하지만 레거시 수요는 부진하다고 밝히면서 올해 파운드리 (+20% → +15~18% YoY)와 반도체 (10% 이상 → 약 10%, 메모리 제외) 산업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으며, ③ EUV 독점 업체인 ASML은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각각 27%, 40% 감소한 가운데 1분기 신규 수주금액 (5.3조원)이 시장 예상치 (8조원)를 하회하며 실적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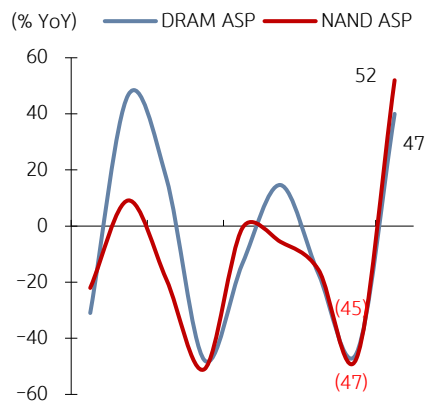
반도체, 부정적인 확대 해석은 경계: ① 강력한 AI 수요, ② 하반기 개선

현 시점에서 엔비디아 주가 급락만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부정적인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할 때로 판단된다. TSMC CEO는 B2C용 가전 제품과 전통적 일반 서버의 수요는 주춤하지만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강하다고 언급했고, ASML CEO도 올 하반기 수요가 상반기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1분기 예비 실적발표를 생략한 SMCI는 1분기 실적발표 (4/30)에서 회사측 코멘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개선 방향성 유효, 탄력적 실적 개선 기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4/30), SK하이닉스 (4/25)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실적 정상화 시작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은 매출 12.3조원, 영업이익 2.2조원 (OPM +18.0%)으로 컨센서스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D램 영업이익은 2.5조원 (OPM +34.7%)으로 예상되고, 낸드는 영업적자가 전분기대비 1.4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분기에 3Q22 이후 6개 분기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는 2024년 DS 영업이익이 18.5조원으로 전년대비 33.4조원 개선이 기대되고, 2024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308.6조원 (+19%), 38.3조원 (+483% YoY)으로 예상된다. 한편 엔비디아 주가 급락, 중동 지역 지정학 우려, 미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지연 및 원/달러 환율 상승 (1/1~4/19: +6.2%) 등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기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2024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① 스페셜티 D램 매출비중 확대, ② 고용량 스토리지 낸드 수요개선, ③ AI 반도체의 강력한 수요 증가 등으로 향후 탄력적 실적개선이 기대되어 향후 하락위험보다 상승여력에 초점을 둘 때로 판단된다.

2024E ASP: DRAM +47%, NAND +52%



자료: TrendForce, 삼성전자,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역 (주가 —, 목표주가 —)

종목명	인수 합병 업무관련	1년이내 IPO	BW/CB/EB 인수계약	유상증자 모집주선	주식 등 1% 이상보유	자사주 취득/처분	주식/파생 등 유동성공급	ETF 설정/해지	ELW 발행/유동성공급	채무이행 보증	계열사 관계	공개매수 사무관련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투자등급 비율 (2024. 03. 31 기준)

매수 (Buy)	중립 (Hold)	매도 (Sell)
87.6	12.4	-

투자의견 분류 및 기준

종목 투자의견 (12개월 예상 절대수익률 기준)

Buy: 15% 초과	Hold: 15% ~ -15%	Sell: -15% 초과

비고: 2017년 2월 23일부터 KB증권의 기업 투자의견 체계가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Underperform)에서 3단계 (Buy, Hold, Sell)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0일부터 KB증권의 종목 투자의견 제시 기준이 6개월 예상 절대수익률에서 12개월 예상 절대수익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업 투자의견 (12개월 예상 상대수익률 기준)

Positive: 시장수익률 상회	Neutral: 시장수익률 수준	Negative: 시장수익률 하회

비고: 2017년 6월 28일부터 KB증권의 산업 투자의견 체계가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에서 (Positive, Neutral, Negative)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0일부터 KB증권의 산업 투자의견 제시 기준이 6개월 예상 상대수익률에서 12개월 예상 상대수익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